

나주시, 평생교육사 수료식

제3기 새내기 평생교육사 20명 배출

배움과 나눔의 평생교육도시 조성 기여할 듯



나주시는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민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해줄 제3기 새내기 평생교육사 20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시립도서관 2층 평생학습관에서 제3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갖고, 수료생들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했다.

제3기 교육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교육원에서 위탁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이론수업 40주, 현장실습 160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나주시에서 3년째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실무현장에서 수업을 함으로써 교수업무의 직·간접 체험 및 평생교육사의 전반적 업무를 훑어보며 구조화된 교육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격증 취득 후 평생학습 현장에 참여하여 평생교육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학습자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지역 내 성인 교육

에 대한 전문적 인프라 구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수강생 대표 최정란 씨는 “평생교육은 ‘성장-고용-복지’라는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가장 확실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받게 된 것은 행운이고, 나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긍심을 갖는다”며 기쁨을 전했다.

강동렬 혁신도시과장은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배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평생교육 전문가인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0년에도 제4기 평생교육사 과정을 운영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모두가 원하는 배움과 나눔을 확산할 수 있는 활기찬 평생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해남군 의회, 박종부 의원의 홍보비 삭감 발언에 논란

지난 7월엔 해남군의회 임시회 후 동료의원에 욕설도

제297회 해남군 의회 정기회가 29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회기 중이다.

또한 제297회 해남군 의회 정기회중 지난 6일 박종부(더불어민주) 의원은 “홍보비 삭감을 요구하면서 지역신문은 효과가 좋으니 지역신문에만 홍보하면 되지 인터넷 신문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서 인터넷 신문 홍보비 삭감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날 해남군 의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심의한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을 해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듯 해 해남군을 출입한 기자들은 언론인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무소속으로 초선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지난 7월 24일 열린 해남군의회 임시회 유통지원과 업무보고에서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묶어 대체부지에 농산물 물류센터로 건립하자는 자신의 주장을 서해군 의원이 반박하자 업무보고 후 서 의원에게

상임위원회실과 복도 등에서 욕설을 퍼부은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오 위원장은 “군의원이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화를 해서 따지고 사과를 하라고 하거나 법적 대응을 들먹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의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서 의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오 위원장에 대해서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항의한 것일 뿐 잘못된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해남군의회 또 다른 의원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면서 “나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직원들도 들었다”고 말했다.

또 “한 두 차례도 아니고 벌써 서너 번 되는데 다른 의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군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이 되겠다 자칭하던 군 의원의 언행이 그 정도 수준이 라니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였다.

이 같은 박 의원의 행태가 퍼져자 주민 김 모(해남읍, 66세)씨는 “1분 1초를 다투는 세상에 소위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하나는 모르고 들은 아는 것처럼 몰지각한 발언을 해 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 모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 19일 여성이용소방대에 편협성 발언을 해 이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성 이용소방대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며 죄송하다”고 공식사과를 했으나 “지난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평당으로 출마 해 낙선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퍼져 기자들은 박 의원을 지켜보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정가와 언론계에서는 “일부 언론의 비판이나 보도 행태에 개인적인 불만이 있다고 해서 홍보비를 삭감하자는 것은 의원 자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남=서명환 기자

한국생활개진화순군연합회 총회 성료



화순군은 한국생활개진화순군연합회 총회가 지난 10일 생활개진회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총회는 2019년 사업결과와 활동상황 보고, 읍면생활개진회 활동기록부 평가 및 시상, 농작업 안전교육으로 진행됐다.

군연합회에서는 읍면생활개진회 활동기록부 등을 평가하여 개진회 활성화와 봉사활동이 우수한 능주면생활개진회, 도곡면생활개진회, 한천면생활개진회, 북면생활개진회에 시상하고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농약안전사용과 마스크 착용교육을 실시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는 마스크를 보급했다.

이어서 실시한 민승규 전 농촌진흥청장의 화순농업의 미래에 대한 특강은 화순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농업인들이 준비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여 생활개진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태은 회장은 “화순 국화향연에서 국화빵과 국화누룻지를 판매해 큰 성과가 있었다”며 “생활개진회가 화순군 발전에 보탬이 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생활개진회가 우리 지역의 농업 발전은 물론 봉사활동, 환경보존 등의 여러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개진회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화훼장식연구회에서는 연말 화훼장식으로 갈라드를 만들어 농업기술센터 로비를 장식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농업인에게 찬사와 격려를 받았다.

화순=박순철 기자

“크리스마스는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즐기세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가족, 연인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인다.

섬진강기차마을 측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을 크리스마스 주관을 정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차마을 내에는 대형 트리와 각종 포토존을 설치해 인생샷을 가득 담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소원트리(크리

스마스 소원 적어 걸기) ▲산타 코스튬 대여 등을 통해 연인, 가족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을 선사한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더욱 풍성한 이벤트가 관광객을 기다린다. 먼저 밴드 ‘신촌타이거즈’와 색소폰 연주자 ‘고민석’의 공연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여기에 ▲루돌프의 사랑 증정 ▲장미차 시음 행사 ▲우리가족 크리스마스

무드등 및 드림캐쳐 만들기 등 각종 체험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방문객들은 기차마을이 준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데이 선물을 통해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 모두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차마을 관계자는 “섬진강기차마을에서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기쁨을 가득 담아가셔서 행복하고 따뜻하게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여주시 최고의 시정 ‘낭만포차 이전’



올해 여주시민이 뽑은 여주시 시정 성과 1위는 ‘낭만포차 이전’으로 나타났다.

여주시는 지난 11월 5일부터 한 달간 공무원과 시민 설문 등을

통해 2019년 여수를 빛낸 시정 성과 10대 성과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설문 결과 1위는 온라인 시민 투표에서 총 2534표 중 395표(16%)

를 받은 ‘낭만포차 이전’이 차지했다.

권오봉 여주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낭만포차 이전은 교통, 소음, 쓰레기 문제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해양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2위에는 ‘주차장 확충과 무료주차 시간 확대’가 뽑혔고, 3위에는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이름을 올렸다.

다음으로 ▲웅천 문화·교육·복지 융복합단지 조성 ▲브랜딩 슬로건 ‘섬섬여수’ ▲경도 진입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이 뒤를 이었다.

여수=김도현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번호사)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